

## 성차별경험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 성별집단자존감을 조절요인으로

김 은 하

박 한 솔<sup>†</sup>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개인자존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0명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차별경험, 개인자존감, 성별집단자존감, BJW를 측정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자존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BJW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별집단자존감의 하위유형(멤버십, 사적, 공적, 정체성)이 각각 성차별경험과 BJW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정체성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유형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그리고 상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차별경험, 개인자존감, 성별집단자존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

<sup>†</sup> 교신저자 : 박한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울곡관 525-2호  
E-mail : solll11@ajou.ac.kr

성차별은 오래된 사회 의제 중 하나이지만, 특히 최근 '미투' 사건이 발생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여성혐오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2017). 이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김수한, 신동은, 2014),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연례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에 따르면,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조사 대상 144개국 116위였고, 경제 참여·사회(예. 남녀 간 임금격차) 및 정치 부분에서의 양성 평등 수준은 세계평균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삭, 2017). 또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7)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의 93%가 "한국을 성적으로 평등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예로는 고용 및 승진차별, 남·녀 간의 임금격차, 성희롱, 성폭력, 결혼,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희식문화 등이 있으며(박지현, 탁진국, 2008; 안상수, 김금미, 2010; 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사실상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가지 전일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장재윤, 김혜숙 2003) 가정 일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이주일, 유경, 2010; Kim & Shim, 2016).

아직까지 성차별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해외에서는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원 중 하나로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scher & Holz, 2010; Okechukwu, Souza, Davis, & Castro, 2014). 예를 들어, 여러 연구를 통해 성차별경험은 심리적 디스트레

스를 높이고, 심각한 경우, 우울이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현, 탁진국, 2008; Kira, Shuweikh, Kucharska, Abu-Ras, & Bujold-Bugeaud, 2017). 또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경험은 직장 동료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낮은 생산력, 낮은 직무 만족, 낮은 경력 몰입 그리고 높은 이직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상수, 김금미, 2010; Burke & Mikkelsen, 2005).

이와 더불어, 성차별경험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JW란 해외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온 개념으로, 세상은 정당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할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BJW는 타인과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혹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데, 가령, 부모와의 갈등(예. 부모의 폭력, 부모의 알코올 중독), 또래 괴롭힘 혹은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낮은 BJW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eia, Kamble, & Dalbert, 2009; Schaafsma, 2013; Zhang & Zhang, 2015). 특히, 차별경험과 BJW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은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세상 탓'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낮은 BJW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ench & Chang, 2007). 즉, 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이 사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신뢰롭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을 독립변인으로, BJW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성차별경험이 BJW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BJW에 주목한 이유는 첫째, 최근 오랜 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 높은 미취업률과 비정규직률, 그리고 정치 및 경제적 비리 등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불공정성과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김은하, 김수용, 2017; 유명순, 2016). 둘째, BJW가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개인내적 변인이기 때문인데(Dzuka & Dalbert, 2007; Jiang, Yue, Lu, Yu, & Zhu, 2016), 예를 들어, Lucas(2009)의 연구에 따르면, BJW는 높은 심리적 안녕감, 통제감, 긍정정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ucas, 2009; Otto & Dalbert, 2005),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와 적극적 대처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albert, 2001; Poon & Chen, 2014). 셋째, BJW가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이기 때문인데, 가령, Lipkus와 Sielger(1993), Liang과 Borders(2012) 그리고 Schaafsma(2013)은 인종이나 성차별경험이 낮은 BJW를 통해 심리적 디스트레스, 우울을 야기하고 심리적 웰빙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낮아진 BJW는 궁극적으로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기 때문에 BJW에 대한 연구가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저항 모델(stress-resistance model; Holahan & Moos, 1991)을 토대로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트레스-저항 모델은, 스트레스가 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전통적인 스트레스 모델과는 달리, 개인에게 심리적, 사회적 자원이 있다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심리적 적응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스트레스-저항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 요인에 초점을 두는데, 특히 Meyer's(2003)의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minority stress model)에 기반을 둔 스트레스-저항 연구는 차별경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내적,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차별경험이 늘 낮은 BJW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령,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과 김수용(2017)에 따르면, 직장 내 성차별경험과 BJW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그 효과크기는 mediu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hen, Liu, Zhao와 Shi(2015)의 연구에서도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 효과 크기는 small~medium 정도에 그쳐,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지만,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차별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 요인으로서는 통제감, 자존감, 낙관주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사회적 지지, 수용 등이 보고되었다(Chen, Mallinckrodt & Mobley, 2003; Kaiser, Major, & McCoy, 2004; Moradi & Subich, 2004; Noh, Beiser, Kaspar, Hou, & Rommens, 1999). 이러한 조절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특히 성별집단지존감에 주목하여, 개인 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집단지존감이 성차별경험과 BJW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성별집단지존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기반한 자존감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자존감은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Tajfel, 1982), 전자는 개인적 정체감(사람들이 개인으로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과 관련이 있고 후자는 사회적 정체감(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예. 국가, 성, 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과 관련이 있다(Crocker, Luhtanen, Blaine, & Broadnax, 1994). 즉, 개인적 정체감이 긍정적이면 개인자존감이 높고 사회적 정체감이 긍정적이면 집단자존감이 높다는 것이다.(김혜숙, 1993). 개인은 성,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 속하게 되는데, 그 중 성별과 관련한 집단자존감을 성별집단자존감이라 부른다(박용두, 이기학, 2008). 달리 말하면, 성별집단자존감은 자신이 속한 성별집단에 대한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별집단자존감이 높은 여성은 여성이라는 집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며 여성이라는 사실이 개인의 정체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원숙연, 최윤희, 2015).

집단자존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Luhtanen와 Crocker(1992)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자존감에 있어 개인차를 보이듯이 집단자존감에 있어서도 개인차를 보이며, 여러 연구를 통해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독립적인 개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Corning, 2002; Yu, Zhou, Fan, Yu, & Feng, 2016). 집단자존감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크게 네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는데(Crocker & Luhtanen, 1990), 먼저, 멤버십(membership) 차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동기와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둘째, 사적(private) 차원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는가를 의미한다. 셋째, 공적(public) 차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정체성(identity) 차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성별집단자존감을 조절요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집단자존감이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의 한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김민정, 현명호, 2010; 이웅택, 이은경, 2016; Moradi & Subich, 2004)에서는 개인자존감만 측정 및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자존감이 성차별경험을 완충하는 개인내적 요인임을 밝혔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해외의 몇몇 연구에서 집단자존감의 조절 및 완충 효과가 보고되었는데, 가령, Corning(2002)의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경험은 집단자존감이 낮은 여성에게서만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rmenta, Knight, Carlo와 Jacobson(2011)의 연구와 Liu와 Zhao(2016)의 연구에서도 집단자존감과 유사한 개념인 집단정체감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차별경험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몇몇 연구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한 경험이 많은 개인이 차별을 경험할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많은 교류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Fischer & Shaw, 1999; Lee, 2003), 집단자존감이 차별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을 포함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에서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유두련, 2014), 자아존중감의 정의를 확장시켜 집단자아존중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 개인자존감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즉, 개인자존감을 통제할 상태에서 성별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개인자존감이 자기가치 및 자기평가와 관련된 변인으로 가장 중요한 개인의 인지적 요인(김성범, 김진숙, 2011)이며 집단자존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자존감은 많은 연구를 통해 학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학교폭력 피해경험, 차별경험과 같은 스트레스적 상황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례, 이인혜, 2003; Fisher & Shaw, 1999; Liang & Fassinger, 2008; Moradi & Subich, 2004; Wei, Ku, Russell, Mallinckrodt, & Liao, 2008), 성별집단자존감의 고유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자존감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차별경험은 BJW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에 아직까지 성차별경험이 BJW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개인자존감이 성차별과 같은 스트레스적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지만 자존감을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자존감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개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자존감과 더불어 집단자존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김지경, 박수애, 이훈구, 1999), 특히 집단주의 문화권의 동양인에게 개인의 사회적 정체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한유화, 정진경, 2007), 집단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일의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BJW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둘째, 집단자존감, 특히 여성으로서 집단자존감(이하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사후 분석으로 성별집단자존감의 하위요인인 멤버십, 사적, 공적, 정체성이 각각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전히 많은 한국 여성들이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차별을 근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성차별에 노출된 여성들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 법

###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여성

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와 수도권에 소재한 여성발전센터, 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연구 목적과 방법 및 설문조사 링크를 올려 설문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과 해, 자발적인 참여, 정보의 익명성과 보호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모든 참여자들은 3천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보상으로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0.60세( $SD=11.63$ )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 112명(37.3%), 기혼 178명(59.3%), 이혼 혹은 별거 9명(3.0%), 사별 1명(0.3%)이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38명(12.7%), 30대 77명(25.7%), 40대 113명(37.7%), 50대 46명(15.3%), 60대 이상 26명(8.6%)이었다. 또한, 최종학력은 초, 중학교 졸업 1명(0.3%), 고등학교 졸업 58명(19.3%), 대학교 졸업 218명(72.7%), 대학원 졸업 이상 23명(7.7%)이었고, 직업은 일반사무/관리직 94명(31.3%), 영업직 3명(1.0%), 생산/노무직 7명(2.3%), 서비스직 18명(6.0%), 전문직 37명(12.3%), 자영업 18명(6.0%), 학생 18명(6.0%), 주부 88명(29.3%), 무직 16명(5.3%)이었다.

#### 측정도구

##### 성차별사건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성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하고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2017)이 한국어로 번안한 성차별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6점 척도(1=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6=거의 늘 그런 일이 일어났다(내 삶의 70%이상의 시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까지 살면서'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Klonoff 등(199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임금인상, 승진, 좋은 직장 또는 재계약 명단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성차별적 농담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가 있다.

##### 개인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 원호택(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이훈진 등(1995)의 연구에서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가 있다.

##### 성별집단지존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성별집단지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Crocker와 Luthanen(1990)이 개발하고 김혜숙(1994)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고 박용두와 이기학(2008)이 사회적 집단여성 집단으로 수정한 집단자존감 척도(Collective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 4개의 하위요인(멤버십, 사적, 공적,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별에 대한 집단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이훈진 등(2001)의 연구에서 .81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성별집단에 도움이 되는 일원이다(멤버십)”, “나는 내 성별집단이 자랑스럽다(사적)”, “다른 사람들은 내 성별집단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공적)”, “내 성별집단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정체성)”가 있다.

####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BJW를 측정하기 위해 Dalbert(1999)가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 척도(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문항으로,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사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하와 김혜림(201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공정하다고 믿는다”가 있다.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고, 성별집단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한 후, 1단계에서는 통제 변인인 개인자존감을, 2단계에서는 예측 변인인 성차별경험과 조절변인인 성별집단자존감을, 3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변인들의 첨도와 왜도는 모두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상분포의 기준(첨도 4미만, 왜도 2미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차별경험은 개인자존감, BJW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성별집단자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자존감과 성별집단자존감은 BJW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자존감과 성별집단자존감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혼 여부, 직업, 학력에 따라 성차별경험, 개인자존감, 성별집단자존감, BJW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결혼 여부, 직업,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성차별경험, 개인자존감, 성별집단자존감, BJW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 효과 분석에서는 연령, 결혼 여

표 1. 측정변인의 상관 및 기술통계치

변인	1	2	3	3.1	3.2	3.3	3.4	4
1. 성차별경험	-							
2. 개인자존감	-.200**	-						
3. 성별집단자존감	.295**	.022	-					
3.1. 멤버십	.283**	-.099	.756**	-				
3.2. 사적	.304**	.078	.752**	.408**	-			
3.3. 공적	.367**	-.134*	.687**	.493**	.381**	-		
3.4. 정체성	-.086	.194**	.635**	.259**	.344**	.124*	-	
4. BJW	-.248**	.401**	.136*	-.043	.161**	.008	.239**	-
<i>M</i>	2.242	3.347	2.663	2.706	2.553	2.396	3.020	3.660
<i>SD</i>	.897	.641	.446	.546	.547	.696	.797	.923
왜도	.993	-.135	-.111	.077	.241	.078	.118	-.395
첨도	.977	-.200	1.738	.532	.685	-.356	.276	.177

\*  $p < .05$ . \*\*  $p < .01$

부, 직업, 학력 등과 같은 인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 효과

다음으로, 개인자존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변인의 공차한계 값이 .1미만, 분산팽창 요인 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학식, 임지훈, 2015). 이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개인자존감이 BJW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자존감이 높을수록,

BJW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을 추가하였는데, 그 결과, 성차별경험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BJW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집단자존감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BJW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경험을 적게 할수록 그리고 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BJW가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집단자존감의 평균값과  $\pm 1SD$ 에 따라 자료를 세 집단(저, 중, 고)으로 구분한 후 성차별경험과



표 2. BJW에 대한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지존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변인	BJW					
		<i>B</i>	<i>SE</i>	$\beta$	<i>t</i>	$\Delta R^2$	<i>F</i>
1	개인자존감	.577	.076	.401	7.549***	.161	56.989***
2	개인자존감	.503	.075	.349	6.657***	.065	28.720***
	성차별경험	-.244	.056	-.237	-4.322***		
3	성별집단지존감	.409	.111	.198	3.678***	.012	22.973***
	개인자존감	.498	.075	.346	6.633***		
	성차별경험	-.286	.059	-.278	-4.816***		
	성차별경험×성별집단지존감	.205	.095	.119	2.160*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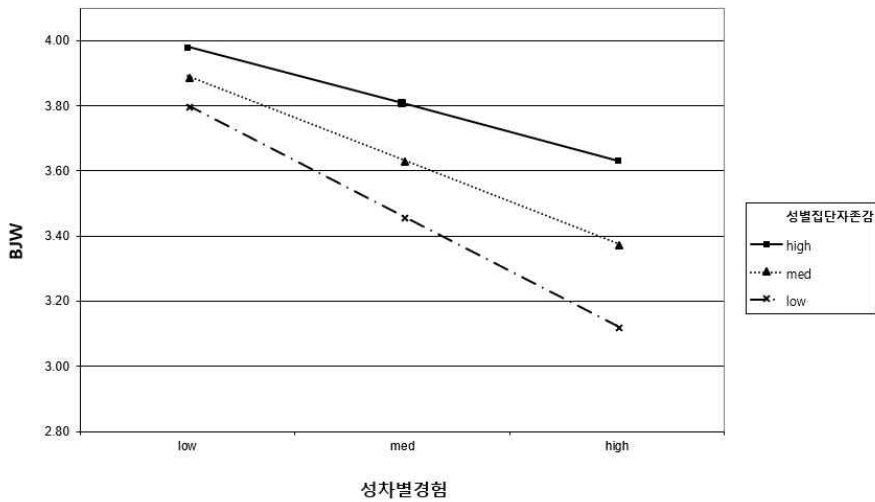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집단지존감의 조절효과

표 3. 성별집단지존감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i>b</i>	<i>SE</i>	<i>t</i>	LLCI( <i>b</i> )	ULCI( <i>b</i> )
성별집단지존감	High	-.194	.061	-3.204**	-.314	-.075
	Med	-.286	.059	-4.816***	-.403	-.169
	Low	-.377	.084	-4.521***	-.542	-.213

\*\*  $p < .01$ . \*\*\*  $p < .001$ .

BJW간의 관계가 세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1과 표 3과 같이, 성별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BJW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낮은 BJW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성별집단자존감 하위요인의 조절 효과

마지막으로,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집단자존감의 4개 하위 차원이 각각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성차별경험과 멤버십 차원의 상호작용, 성차별경험과 사적 차원의 상호작용, 성차별경험과 공적 차원의 상호작용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성차별경험과 정체성 차원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집단자존감의 하위요인 중, 멤버십, 사적, 공적 차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으로, 멤버십, 사적, 공적 차원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BJW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 4. BJW에 대한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 하위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B	SE	$\beta$	t
성차별경험x멤버십	.223	.088	.151	2.539**
성차별경험x사적	.209	.086	.143	2.446**
성차별경험x공적	.162	.076	.135	2.143*
성차별경험x정체성	-.003	.065	-.003	-.050

\*  $p < .05$ . \*\*  $p < .01$ .

## 논 의

지난 몇 십 년 동안 한국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기대, 남성 조직적 문화, 성적 대상화 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김은하 등, 2017). 이에 다양한 채널(예. 온라인, 언론, 포럼)을 통해 성차별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도 시행되었지만 성차별 관련 심리학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성차별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개인 및 사회적 자원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개인자존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집단자존감이 이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최근 한국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 상대적 박탈감, 불공정성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심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은하, 김수용, 2017),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 및 이를 조절하는 개인 내적 자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상한 바와 같이, 성차별경험은 BJW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낮은 BJW를 보인다는 것으로, 이는 부정적인 경험,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과 같이 차별을

경험할수록,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BJW 관련 선행 연구들(Lipkus, 1993; 김은하 등, 2017)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Lipkus와 Siegler(1993)의 연구와 Liang과 Borders(2012)의 연구에서는 인종차별을 많이 경험한 유색인종(예. 흑인)이 자신이 사는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즉 낮은 BJW를 보이고 궁극적으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련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BJW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Foley, Hang-Yue, & Wong, 2005)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차별을 경험할수록, 낮은 BJW를 보이는 이유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가설(Just belief hypothesis; Jost & Hunyady, 2005)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고 세상을 합리화하려는 경향, 즉, 강한 BJW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인종이나 성별과 같이 불가변적인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강한 BJW를 유지하려는 욕구와 희망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Choma, Hafter, Crosby & Foster, 2012; Schaafsma, 2013).

둘째, 개인자존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 집단자존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이 BJW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집단자존감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Bettencourt & Dorr, 1997; Crocker, Luhtanen, Blaine, & Broadnax, 1994)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집단자존감이 소수자들에게 보호요인이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데, 예를 들어, 인종집단자존감, 성소수자집단자존

감, 성별집단자존감은 각각 인종소수자, 성소수자, 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에 기여하며,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orning, 2002; Katz, Joiner, & Kwon, 2002; Kong, 2016; Sanchez & Vilain, 2009).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이유는 성별집단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여성 집단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높고(멤버십 차원), 여성 집단에 대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며(사적 차원), 다른 사람들이 여성 집단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지각하기 때문이다(공적 차원). 또한 성별집단자존감이 높은 여성은 타집단에 대해 차별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여성 집단에 대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고(원숙연, 최윤희, 2015),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BJW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집단자존감의 4개 하위 차원이 각각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멤버십, 사적, 공적 차원이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부적 관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멤버십 차원과 사적 차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집단(예. 인종 집단, 여성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때문에 차별을 경험해도 심리적 부적응에 취약하지 않다는 선행 연구(Noh & Kasper, 2003)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신의 민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신 및 전념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민족정체성 헌신(ethnic identity commitment)이 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완충한다는 Torres, Yznaga

와 Moore(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아직까지 공격 차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타인이 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지각하는 여성, 즉 공격 차원이 높은 여성의 경우, 성차별을 경험할 때 심리적 불편감을 덜 느끼고 과잉일반화의 오류(예. '모든 남자는 여성을 차별해')를 할 가능성이 낮아 BJW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멤버십, 사적, 공격 차원의 조절 효과가 유의한 반면에 정체성 차원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체성 차원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체성 차원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령, 민족정체성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민족정체성이 높은 사람(특정 민족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개인에게 큰 의미를 지니며 민족정체성이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은 타인의 모호한 반응을 차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차별을 경험한 후 심리적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ng, Kim, Vaughan, & Li, 2010; Operario & Fiske, 2001; Yip, Gee, & Takeuchi, 2008). 집단자존감의 정체성 차원이 민족정체성과 유사한 개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체성이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반대로, 정체성 차원의 긍정적 효과를 밝힌 연구도 있었는데, 특히 자신의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개인의 경우 민족정체성이 높다 하더라도 차별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Liu & Zhao, 2016; Mossakowski, 2003). 이와 같이 성별집단자존감

의 정체성 차원은 여성 집단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예. 사적 차원)에 따라 성차별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 혹은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체성의 조절 효과가 사적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개인자존감과 성별집단자존감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자존감이 높다고 여성으로서의 집단자존감이 높은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인자존감이 낮다고 여성으로서의 집단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집단자존감 척도를 개발한 Luhtanen와 Crocker(1992)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은 독립적인 개념임을 재확인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개인자존감과 집단자존감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점 그리고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두 차원인 개인자존감과 성별집단자존감의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과 개인자존감이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이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경험이 개인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 연구(Leary & Baumeister, 2000)와 일치하지만, 차별경험이 집단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Cassidy, O'Connor, Howe, & Warden, 2004; Fischer & Holz, 2007)와 상반된 결과이다. 하지만, 차별

경험이 집단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차별경험과 집단자존감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가 있는 반면, 차별경험과 집단자존감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Corning, 2002)도 있었고, 차별경험이 집단자존감에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었다(Bourhis, Sachdev & Gagnon, 1997). 이에,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존감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차별경험이 집단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 정체감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외집단으로부터 차별을 받으면 오히려 그 외집단과의 긍정적 비교를 하게 되고, 내집단에 대한 관심, 자부심, 소속감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Bourhis, et al., 1997). 이러한 해석은 유색인종 정체성 발달 모델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인종소수자들은 차별을 경험하면서 혼란,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되고 주류 사회에 대한 분노와 의심을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인종 집단에 대해 맹목적으로 관심과 자부심을 느끼는 과정을 경험한다(Morrien & Atkinson, 1983). 즉, 차별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성차별경험이 성별집단자존감에 미치는 연구가 부족하고 관련 결과들이 비일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넘어서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인지적 변인을 중점적으로 다루으로써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개인자존감만을 다룬 반면에 국내 처음으로 성별집단자존감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성별집단자존감은 성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조절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을 상담할 시, 성별집단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멤버십, 사적, 공적 차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내면화하여 성별집단자존감이 낮은 여성의 경우 성차별의 부정적 영향에 보다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차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면 정체성 차원이 높은 것이 성차별경험을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Mossakowski, 2003), 정체성 차원 자체 보다는 다른 차원의 성별집단자존감을 먼저 다루는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을 임의표집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제한된 표본으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인구학적 변인(예. 직업, 학력, 지역, 결혼 여부)들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이러한 변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차별사건 척도는 직장 내 성차별경험을 묻는 문항이 포함

되어 있어 비직장인(예. 학생, 주부, 무직자)에게 사용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이 척도가 넓은 범위의 성차별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김은하 등, 2017), 본 연구의 예비 분석을 통해 취업 여부에 따른 성차별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차별사건 척도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취업 여부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셋째, 성차별사건 척도는 노골적이고 명백한 성차별경험만 측정한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최근 간접적이고 미묘한 성차별도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Nadal, 2009; Sue, Bucceri, Lin, Nadal, & Torino, 2007),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범위의 성차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BJW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Schaafsma, 2013),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또한 조절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Dalbert(1999)가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 척도를 사용하여 BJW를 측정하였는데, 이 척도는 BJW를 측정하는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지만, BJW를 단일요인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BJW가 다차원적 개념이고 BJW의 하위요인이 상반된 결과(예. '자신'이 사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 개인적인 믿음 vs. '타인'이 사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 일반적인 믿음)을 보인다고 보고한 최근의 연구를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BJW를 다차원적 요인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척도(예. Lucas, Alexaner, Fireston와

Lebreton(2007)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혹은 Stroebe, Postmes, Tauber, Stegman과 Jonn(2015)의 5 차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BJW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 집단자존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만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과 BJW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다른 요인(예. 내적통제, 대처전략, 사회적지지, 역할에 대한 만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다시 제기된 성차별 그리고 낮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주목하여 여성들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및 인지적 요인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별집단자존감이 성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개인자존감과 더불어 성별집단자존감에 대한 연구와 개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여성들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요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의 실태와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마련하는 노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민정, 현명호 (2010).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남성 화병 증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9-33.

- 김은하, 김수용 (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상담학연구*, 18(1), 1-22.
-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667.
- 김이삭 (2017). '한국 성평등' 수준 118위...올해도 하위권 못 면해. *한국일보*. 2017.11.02.
- 김성범, 김진숙 (2011). 사관후보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상담학연구*, 12(6), 1915-1933.
- 김수한, 신동은(2014). 기업내 여성관리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경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학 논문집*, 12, 149-167.
- 김지경, 박수애, 이훈구 (1999).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집단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53-64.
- 김혜숙 (1993).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3(1), 289-301.
- 박용두, 이기학 (2008). 사회적지지, 자존감, 진로포부간의 성차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63-282.
- 박지현, 탁진국 (2008). 여성종업원의 직장 내 성차별 지각이 경력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2(2), 245-263.
- 안상수, 김금미 (2010). 성별 관련 조직 요인들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285-309.
- 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한국여성근로자의 성차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8(2), 307-328.
- 원숙연, 최윤희 (2015). 조직 내 성차별 인식에 있어서 성별 집단자존감의 영향력. *지방정부연구*, 19(1), 1-18.
- 유두련 (2014).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에 따른 친환경적태도와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5(3), 183-206.
- 유명순 (2016). 사회정신 불건강의 조건과 맥락.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학회 세미나*.
- 이주일, 유 경 (2010). 직장-가정 갈등의 세대 차이와 직장-가정 갈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3(3), 471-503.
- 장재운, 김혜숙 (2003). 직장-가정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1), 23-42.
- 최미래,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22(2), 363-383.
- 한국여성민우회 (2017). 2017년 성차별 보고서.
- 한유화, 정진경 (2007).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7-131.
- Armenta, B. E., Knight, G. P., Carlo, G., & Jacobson, R. P. (2011). The relation between ethnic group attachment and prosocial tendencies: The mediating role of cultural valu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1), 107-115.
- Bettencourt B., A. & Dorr, N. (1997). Collective self-esteem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llocentrism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9), 955-964.

- Bourhis, R. Y., Sachdev, I., & Gagnon, A. (1997). Interdependence, social identity, and discrimination. In R. Spears, P. J. Oakes, N. Ellemers, & A. Haslam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stereotyping and group life* (pp. 273-295). Oxford, UK: Blackwell.
- Burke, R. J., Mikkelsen, A. (2005). Gender differences in policing: Signs of progress? *Employee Relations*, 27(4), 425-436.
- Cassidy, C., O'Connor, R. C., Howe, C. & Warden, D. (2004).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personal and ethnic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329-339.
- Chen, H-J., Mallinckrodt, B., & Mobley, M. (2003). Attachment patterns of East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urces of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of the impact of U.S. racism and cultural distress. *Asian Journal of Counseling*, 9, 27-48.
- Choma, B, Hafter, C., Crosby, F., & Foster, M. (2012). Perceptions of personal sex discrimination: The role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situational ambiguit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2(5), 568-585.
- Corning, A. F. (2002). Self-esteem as a moderator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117-126.
- Correia, I., Kamble, S. V., & Dalbert, C. (2009). Belief in a just world and well-being of bullies, victims, and defenders: A study with Portuguese and Indian students. *Anxiety, Stress, Coping*, 22(5), 497-508.
- Crocker, J., &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0-67.
- Crocker, J., Luhtanen, R., Blaine, B., & Broadnax, S. (1994). Collective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hite, Black, and Asia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03-513.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2), 79-98.
- Dalbert, C. (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New York: Plenum.
- Deng, D., Kim, S. Y., Vaughan, P. W., & Li, J. (2010). Cultural orientation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delinquent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9), 1027-1040.
- Dzuka, J., & Dalbert, C. (2007). Student violence against teachers: Teachers' well-being and the belief in a just world. *European Psychologist*, 12(4), 253-260.
- Feng, D., & Xu, L.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hinese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Psychology, Health & Medicine*, 20(2), 177-185.
- Fischer, A. R., & Holz, K. B.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women's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s of collective and personal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154-164.



- Fischer, A. R., & Holz, K. B. (2010). Testing a model of women's personal sense of justice, control, well-being, and distress in the context of sexist discrimin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3), 297-310.
- Fischer, A. R., & Shaw, C. M. (1999). African American's mental health and perceptions of racist discrimin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acial socialization experiences and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95-407.
- Foley, S., Hang-Yue, N., & Wong, A. (2005).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and justice.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in outcomes? *Group & Organizational Management, 30*(4), 421-450.
- Holahan, C. J., & Moos, R. H. (1991). Life stressors,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and depression: A 4-year structural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31-38.
- Jiang, F., Yue, Z., Lu, S., Yu, G., & Zhu, F. (2016). How belief in a just world benefits mental health: The effects of optimism and gratitud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6*(1), 411-423.
- Jost, J. T., & Hunyady, O.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260-265.
- Kaiser, C. R., Major, B., & McCoy, S. K. (2004).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and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perceiving prejudice.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2), 173-184.
- Katz, J., Joiner, T. E., & Kwon, P. (2002). Membership in a devalued social group and emotional well-being: Developing a model of personal self-esteem, collective self-esteem, and group socialization. *Sex Roles, 47*(9-10), 419-431.
- Kim, E., & Shim, J. (2016). The effects of sex roles in family on work-family conflict. *Public Policy Review, 30*(4), 323-347.
- Kira, I. A., Shuweikh, H., Kucharska, J., Abu-Ras, W., & Bujold-Bugeaud, M. (2017). The dynamics underlying the negative mental health effects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wo samples: Poland and Egypt. *Current Psychology, 1-15*.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4), 439-470.
- Kong, D. T. (2016). Ethnic minorities' paranoia and self-preservative work behaviors in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 with collective self-esteem as a buffe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21*(3), 334-351.
- Lee, R. M. (2003). Do ethnic identity and other-group orientation protect against discrimination for Asian-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33-141.
- Lench, H. C., & Chang, E. S. (2007). Belief in an unjust world: When beliefs in a just world fai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9*, 126-135.
- Liang, C. T. H., & Borders, A. (2012). Unjust world beliefs: Their influence on the psychological outcomes of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 528-533.
- Liang C. T. H., & Fassinger, R. E. (2008). The

- role of collective self-esteem for Asian Americans experiencing racism-related stress: A test of moderator and mediator hypothes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1), 19-28.
- Lipkus, I. (1991). The construction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glob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and the exploratory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Differences, 12*, 1171-1178.
- Lipkus, I., M., & Siegler, I. C. (1993). The belief in a just world and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27* (4), 465-474.
- Liu, X., & Zhao, J. (2016). Chinese migrant adolescents'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oderating roles of group identity and the type of school. *Plos One 11*(1), 1-17.
- Lucas, T. (2009). Justifying outcomes versus processes: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as predictor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Current Psychology, 28*(4), 249-265.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3), 60-67.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 Moradi, B., & Subich, L. M. (2003). A concomitant examination of the relations of perceived racist and sexist events to psychological distress for African America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4), 451-469.
- Moradi, B., & Hasan, N. T. (2004). Arab American persons' reporte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The mediating roles of personal contro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4), 418-428.
- Morten, G., & Atkinson, D. R. (1983). 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and preference for counselor race. *The Journal of Negro Education, 52*(2), 156-161.
- Mossakowski, K. N. (2003). Coping with perceived discrimination: Does ethnic identity protec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3), 318-331.
- Nadal, K. L. (2009). Preventing racial, ethnic, gender, sexual minority, disability and religious microaggressions.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positive mental health. *Prevention in Counseling Psychology: Theory, Research, Practice, & Training, 2*, 22-27.
- Noh, S., Baiser, M., Kaspar, V., Hou, F., & Rummens, J. (1999).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depression, and coping: A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193-207.
- Okechukwu, C. A., Souze, K., Davis, K. D., & Castro de, A. B. (2014). Discrimination,

- harrasment, abuse, and bullying in the workplace: Contribution of workplace injustice to occupational health dispar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vidual Medicine*, 57(5), 573-586.
- Operario, D., & Fiske, S. T. (2001). Ethnic identity moderates perceptions of prejudice: Judgements of personal versus group discrimination and subtle versus blatant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5), 550-561.
- Otto, K., & Dalbert, C. (2005). Belief in a just world and its functions for young prisoner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6), 559-573.
- Poon, K-T., & Chen, Z. (2014). When injustice surrenders: The effect of just-world beliefs on aggression following ostrac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2, 101-11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nchez, F. J., & Vilain, E. (2009). Collective self-esteem as a coping resource for male-female tr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1), 202-209.
- Schaafsma, J. (2013). Through the lens of justice: Just world beliefs mediat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4), 450-458.
- Shen, J. L., Liu, X., Zhao, J. X., & Shi, B. G. (2015).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Chinese left-behind children and migrant children in urbanization process.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Education*, 31(1), 108-116.
- Stroebe, K., Postmes, T., Tauber, S., Stegeman, A., & John, M-S.(2015). Belief in a just what? Demystifying just world belief by distinguishing sources of justice. *PLoS ONE*, 10(3), 1-30.
- Sue, D. W., Bucceri, J., Lin, A. I., Nadal, K. L., & Torino, G. C.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and the Asian American experience.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3(1), 72-81.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M. B., Nadal, K. P.,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 Torres, L., Yznaga, S. D., & Moore, K. M. (2011). Discrimination and Latino psychological distress: The moderating role of ethnic identity exploration and commi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4), 526-534.
- Wei, M., Ku, T. Y., Russell, D. W., Mallinckrodt, B., & Liao, K. Y.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451-462.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Yip, T., Gee, G. C., & Takeuchi, D. T. (2008). Racial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ethnic identity and age among immigrant and United States-born Asian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44*(3), 787-800.
- Yu, Z., Zhou, Z., Fan, G., Yu, Y., & Peng, J. (2014). Collective and individual self-esteem mediate the effect of self-construals on subjective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Chin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1*(1), 209-219.
- Zhang, Z., & Zhang, J. (2015). Belief in a just world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trus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in Chin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164-169.

논문 투고일 : 2018. 07. 02

1차 심사일 : 2018. 07. 06

게재 확정일 : 2018. 08. 27

The effect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on  
belief in a just world: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as a moderator

Eunha Kim

Hansol Park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belief in a just world (BJW) after controlling the effect of personal self-esteem. For this, we measured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personal self-esteem,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and BJW in a sample of 300 women and conduc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after controlling the effect of personal self-esteem,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BJW. That is, as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became greater, the negative effect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on BJW decreased. In addition, we tested if four aspects of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e.g. membership, private, public, identit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BJW. It was found that all of the four aspects except identity ha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Finally, we discussed limitation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Key words* :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personal self-esteem; gender collective self-esteem; belief in a just world